



한미약품, 롤론티스 IR52 장영실상 수상

한미약품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주관하는 산업기술상이다. 롤론티스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인다. /한미약품



목암연구소, 아주대의료원과 AI 신약개발 맞손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 과트로 정밀의약 연구원과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관은 각자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한남, 성남시장 장애인복지 표창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는 지난 21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성남시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남은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 장애인 생산품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GRS

절전·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롯데GRS가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인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및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의 확대 추세에 따라 사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 동참한다. 롯데GRS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천을 위해 승용차 5부제 운영,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의 개인 실천 행동 방안과 참여 독려를 위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매장 및 사내 안내 방송 송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 나프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모든 매장에서 대화용 컵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고객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재경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부음

▲조필제(前 동서식품 부회장)씨 별세=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23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함안 산인 선영. 02-3410-3151

한성숙, 캠퍼스 찾아 '모두의 창업' 청년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호서대서 대학생들과 창업 간담회 창업동아리 학생 현장 의견 공유 "대학, 혁신과 도전 시작되는 곳"

'모두의 창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위해 캠퍼스를 찾았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22일 오후 충남 아산 호서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충남대, 경성국립대에 이은 세 번째 대학 현장 행보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창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동아리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해 청년층이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모두의 창업에 대한 개선 의견과 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장관은 "대학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반짝

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개시 25일 만인 지난 19일 현재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만번째 신청자는 대학 시절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다가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15일 16시까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류형우 아워홈 상무

WEF '영 글로벌 리더' 선정

류형우 한화그룹 아워홈 상무(사진)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2026년 영 글로벌 리더(YGL)'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M&A 전문가로서 아워홈의 체질 개선과 사업 다변화를 주도해 온 류 상무의 리더십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경제포럼은 류형우 아워홈 상무와 이순원 PIP랩스 대표를 포함한 '2026년 영 글로벌 리더(YGL)' 명단을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혁신적인 차세대 리더를 선정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가 꼽혔다.

류 상무는 월가 투자은행과 국내



등 기존 사업 구조 재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M&A, 신사업, 마케팅 등 각 부문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총괄 조직을 전략적으로 신설했다.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양수, 중저가 뷔페 사업 진출 등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워홈은 이번 YGL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K푸드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산업은 물론 콘텐츠,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왼쪽 3번째부터)휴앤쇼핑 권진미 대표, 충남경제진흥원 한관희 원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앤쇼핑

휴앤쇼핑, 충남 중소기업인 판로 지원

지역 제품 발굴등 협력 체계 구축

휴앤쇼핑이 충남경제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 휴앤쇼핑은 22일 서울 강서구 휴앤쇼핑 본사에서 충남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휴앤쇼핑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및 판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휴앤쇼핑은 TV 휴앤쇼핑 방송과 모바일 앱을 통해 충남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케일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과 전국 단위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퓨처엠 직원과 가족들이 22일 포항시 남구 냉천에서 진행된 '퓨처엠 Nature Guard Day'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임직원과 생태복원 앞장

포항 냉천서 씨드볼 투척 봉사

포스코퓨처엠은 22일 포항시 남구 냉천에서 '퓨처엠 네이처 가드 데이(Nature Guard Day)'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퓨처엠 네이처 가드 데이는 지역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복원과 환경 정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직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여해 황토와 씨앗을 섞어 만든 씨드볼을 2022년 태풍 피해 이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냉천 일대에 투척했다.

씨앗이 안정적으로 발아해 생육할 경우 냉천에는 국가보호종인 벌개미취를 비롯해 칙솔나무, 감국, 배초향, 털부처꽃 등 하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식물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에는 직원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다. 생태계 복원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씨드볼은 파종 초기 씨앗 유실을 줄이고 발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천연 비료 효과를 통해 토양 회복을 돕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투척할 수 있어 생태계 복원과 도시 녹화 등에 활용된다.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지현 포스코퓨처엠 기초소재기획그룹 차장은 "아이와 함께 손으로 씨드볼을 밟고 던지는 활동이 즐거웠고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에 동참해 보람있었다"며 "오늘 심은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라서 아이가 더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섬유산업 공급망 위기 해법 모색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총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섬유업계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섬유산업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한국국가방공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

합연합회장, 백승호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자리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운철 수석 연구원은 "국내 섬유산업이 업체 수·생산·수출 전반에서 장기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 탄소저감 등 환경규제 강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업계에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